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통독의 유익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전교인 성경 통독 방학 (2주간)

기간: 7월 17일(월)~7월 30일(토)

24주간 그리스도 중심 전교인 성경통독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주신 은혜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충현 찬양 페스티벌 본선

일시: 7월 21일(금) 금요일집회시

장소: 본당

충현교회 주차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차량 등록 <번호인식 차단기 운용>

등록 방법: 교구, 부서에 전달된 링크와 신청서를 통해
기한: 7월 16일(오늘)까지 * 본지 8면 참조.

주차안내

본당과 제2교육관 사이 외부 도로에 주차를 삼가주세요.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될 수 있습니다.)

※ 차량안내부 봉사자 모집 중 / 문의: 정재복 차장(010-3712-0165)

여름성경학교 기간

주차장(선교관↔1교육관 본당 뒷마당) 통제 안내

7월 20일(목) 18:00 ~ 7월 22일(토) 18:00 (유년, 초등)

2023년 제11기 중보기도 훈련생 모집

성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특권과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 가정과 교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중보 기도자로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이론과 실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1기 중보기도 훈련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영역을 넓혀 줄 것입니다. 특히 기도에 자신이 없거나 기도가 절실한 이들을 환영합니다.

※ 중보기도훈련 수료 후 충현교회 중보기도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충현교회 세례교인 누구나 (선착순 마감)

일시: 8월 5일~26일(매주 토요일, 4주간) 오전10시 ~ 12시

장소: 제1교육관 401호

신청마감: 7월 30일(주일)까지

신청방법: 사무국 또는 충현기도실 행정실

중보기도훈련 링크로 바로 신청하기 →

교재비: 5,000원

문의: 홍명주 전도사 010-2772-4856

황경분 차장 010-2013-5006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여호와살롬 [기드온과 함께하는 살롬이야기 - 요 16:33]

영아부	7월 15일(토), 16일(주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 1층 영아부실
유아부	7월 15일(토), 16일(주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 2층 유아부실
유치부	7월 15일(토), 16일(주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 2층 유치부실
유년부	7월 21일(금)~23일(주일) 오후 2시	제1교육관 3층 유년부실

초등부	7월 21일(금)~23일(주일) 오후 2시	제1교육관 3층 초등부실
중등부	7월 23일(주일)~25일(화) 오전 10시 30분	충현기도원
고등부	7월 27일(목)~29일(토) 오전 9시	충현기도원

지난 주일(7월 9일) 설교 되새기기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필요한가

(예레미야 1:4-15)



구약의 선지서들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우리는 애써 ‘심판’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 하니 회복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합니다.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회복된 모습이 어떠한지도 모르는 채 그저 막연히 회복을 기대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선지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그 당시의 사람과 사회를 바르게 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예언도, 미래를 점치는 말이 아니라, 현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그 점이 바르게 되면 좋은 일이 있으며,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됨을 선포하여 시대를 바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선지자 직분은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선지자의 역할과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분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시대를 향하여 감당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도 있습니다. 이는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과 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세상을 바르게 하는 이들이 선지자였기에, 선지자적 삶은 우리 시대의 성도에게도 귀감이자 삶의 모범이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5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오랜 기간 알고 부르셨듯, 우리를 부르실 때도 오랫동안 알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려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예레미야는 10대 중반 정도였으리라 추정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9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심판’과 ‘회복’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가 선지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다스리셨습니다. 선지자로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말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곳으로 갔기에 그 삶에는 기쁨이 있었고,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가지게 된 예레미야였지만,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곧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에 심판에 찾아오기에 ‘무엇을 듣느냐’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뜨거운 마음으로 힘 있는 설교를 했겠지만, 하나냐와 스마야도 예레미야 못지않게 능통하게 이야기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냐는 성전을 장악하여 제사장들과 같은 편이 되어 예레미야를 꾸짖었고, 스마야는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라고 나무랐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 18:15)” 모세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 18:22)”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참된 선지자의 특징은 그가 전하는 말씀에 나타나는 증험과 성취입니다.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과 변화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해야 한다는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하여, 하나냐는 70년이 아닌 2년에 끝난다고 예언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70년의 심판보다는 당연히 2년이 좋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심판을, 회복을 말씀하실 때는 회복을 전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임무가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냐는 자신의 마음대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와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와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 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렘 28:6)”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예레미야는 언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만 선포하였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성행하던 1990년대 초반, 저는 보스턴에서 부교역자로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진심으로 존경하던 담임목사님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대면하시는 광경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 후에 오시면 나야 좋지!”라는 목사님의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옳은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 받게 되리라 (렘 28:9)” 참된 선지자는 자신의 머리가 아닌 성경대로 말씀하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증험이 있는 참된 말씀이 우리 삶에 거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이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되길 소원합니다. .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렘 23:22)” 참된 말씀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잘못과 악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따뜻하며, 책망하고 견책하면서도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막 9:7)”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 2:14)”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이였다면,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아가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딤후 3:8)”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때 악한 길을 깨닫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실 줄 믿습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담임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Do We Still Need Prophets Today?

(Jeremiah 1:4-15)

Rev. Kyu Sam Han

The Book of Prophets of the Old Testament deal with two subjects, 'judgment' and 'restoration'. It's because we all ought to be judged and we are sure to need restoration. Though we are clearly sinners and there is God who judges sinners, we are living trying to turn a blind eye to the 'judgment'. Because we are indifferent to the judgment, we are not well aware of the restoration. Without knowing what we need for the restoration, or what the restored appearance is like, we just vaguely expect the restoration. Here is why we need the Book of Prophets.

The prophets had the task of rectifying the people and society at that time. The prophecies they had told were not to predict the future but to point to what was wrong at present, and in order to correct the period to proclaim the good would happen when what was wrong was corrected, but if not, there would be judgment. The office of the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period does not exist in the present, but the roles and gifts of prophets exist partially in all the believers. There are prophetic missions that a number of Korean churches including our church should perform toward this period. This is truly a blessing. Since prophets became eyes and mouth of God, spoke for God's heart and rectified the world, prophetic life becomes the model and example of life to believers of our age.

Jeremiah a prophet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 I appointed you as a prophet to the nations."(v 5). As if God knew and summoned Jeremiah for a long time, He has known us for a long time and has called. "Alas, Sovereign Lord," I said, "I do not know how to speak; I am too young."(v 6). Jeremiah replied humbly to the calling of God, that he could not speak well because he was young. Scholars conjecture Jeremiah at that time was in his mid-teens. "Then the LORD put forth his hand, and touched my mouth. And the LORD said unto me, Behold, I have put my words in thy mouth."(v 9). God put His words in Jeremiah's mouth. "See, I have this day set thee over the nations and over the kingdoms, to root out, and to pull down, and to destroy, and to throw down, to build, and to plant."(v 10). God said He would be sure to accomplish the 'judgment' and the 'restoration' declared through Jeremiah's lips. Since the person who speaks for the word of God is a prophet, God ruled over Jeremiah's lips. That's why he was joyful as a prophet even in the hardships. He could see as God saw, could say what God said, and had joy in his life because he went where God pointed to, and could bear the mission of healing the nation and the people.

Jeremiah had the mouth of a prophet, but people did not listen to the words of God he delivered. Rather, they listened to the teaching of those who deliver the false words, that is, false prophets like Hananiah and Shemaiah. 'What we listened to matters because when we listen and follow false prophets' wrong words, judgment comes to the place where God leaves, but it is not easy to discern the words of the false prophets. I think Jeremiah a prophet might have preached powerful sermons with a burning heart, but Hananiah and Shemaiah also might have talked masterfully no less than Jeremiah. That's why Hananiah controlled the house of the Lord, sided with priests, and gave Jeremiah a scolding, and Shemaiah rebuked and wrote letters to priests, ordering to stop the words of God Jeremiah proclaimed. "A prophet like me will the LORD, your God, raise up for you from among your own kindred; that is the one to whom you shall listen."(Deut 18:15). The prophet whose words, Moses said, to listen to was Jesus. "If what a prophet proclaims in the name of the Lord does not take place or come true, that is a message the Lord has not spoken. That prophet has spoken presumptuously, so do not be alarmed."(Deut 18:22). The characteristics of a true prophet like Moses who speaks for the words of God are demonstration and accomplishment appearing from the words delivered by him. I hope we experi-

ence the truthfulness of God's word through maturity and transformation gradually appearing in our lives.

In opposition to Jeremiah's proclamation that the captivity in Babylon continues for 70 years, Hananiah prophesied it ended in two years. According to humane thinking, two years definitely better than seventy years' judgment. However, a prophet had a duty of delivering judgment when God says judgment, restoration when God says restoration, and also discerning the true will of God and what God really wanted. Nevertheless, Hananiah proclaimed messages according at his disposal. "He said, "Amen! May the Lord do so! May the Lord fulfill the words you have prophesied by bringing the articles of the Lord's house and all the exiles back to this place from Babylon."(Jer 28:6). Without arguing against Hananiah's false prophecy, Jeremiah only proclaimed it was not God's will. In the early 1990s when a theory of time-limited eschatology was prevalent, I ministered to a Korean church in Boston as a vice-pastor and ever watched my truly venerable senior pastor discussing with those claiming the theory of time-limited eschatology. "If Jesus comes back in a month, I will be glad!", which was said by the pastor, was just Jeremiah's word. "But the prophet who prophesies peace will be recognized as one truly sent by the Lord only if his prediction comes true."(Jer 28:9). We must keep in mind that a true prophet is the person who says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Bible, not his brain. I hope true words having demonstrations dwells in our lives, hold and lead us so that we become the believers playing the role of prophets of this age.

When you hear the true word of God

"But if they had stood in My counsel, And had caused My people to hear My words, Then they would have turned them from their evil way And from the evil of their doings."(Jer 23:22). True words make us turn from evil ways and evil doings. When we listen to God's words, we can see our own wrong doings and wickedness. We must listen to these words that give pain and warmth, reproach and reprimand but give force and motive to turn back. "Then a cloud appeared and covered them, and a voice came from the cloud: "This is my Son, whom I love. Listen to him!"(Mark 9:7). A prophet like Moses is the very Jesus, which was testified from Heaven. Since Jesus saved us by giving out himself to us, we must listen to his words. "who gave himself for us to redeem us from all wickedness and to purify for himself a people that are his very own, eager to do what is good." This is why Jesus gave himself to us and redeemed us. Prophets of the Old Testament were the ones who persuaded people to realize their own sins and turn from them, but Jesus, not finishing there and going further, leads them more aggressively to become the people of God. "This is a trustworthy saying. And I want you to stress these things, so that those who have trusted in God may be careful to devote themselves to doing what is good. These things are excellent and profitable for everyone."(Titus 3:8). I hope the true words of God will be continuously heard. I believe that at that time, not only you realize evil way and turn from it but also you will become children of God who endeavor to do good works.

영역·이울의

충현교회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차세대에서는 청년 부흥의 날을 준비하면서 단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서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합을 경험하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4,5,6월에 세 번의 각 청년부서 주관의 연합 예배와 더불어 3월에 진행된 프렌즈 워십팀 세션팀의 찬양팀 Workshop을 통해서 실제로 찬양팀이 배우고 훈련할 수 있었고, 이후에 연합 예배가 진행하며 배운대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8일에 진행된 부흥의 날 당일에는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폭염도 비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홀에 청1, 청2, 브릿지 부서의 청년들 약 220여명이 모여 프렌즈 워십팀의 인도로 풍성하게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후에 담임목사님의 청년 세대들을 위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앞으로 청년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 후 본당 앞마당에서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게 푸드트럭을 초청해 간식 타임과 교제 시간을 가지고 코이노니아 홀에서 교제 하면서 부흥의 날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연합하여 예배를 새롭게 하고 앞으로의 70주년을 책임지는 다음세대로 세워나가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청년 부흥의 날



저는 올해 교회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차세대 연합예배와 청년 부흥회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사회를 살아가는 시대에 공동체는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각 부서의 청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기도가 입술로 고백되지 않았고 삶의 기대보다는 반복되는 일상이 힘들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년부흥회에 가는 것이 맞을까 라는 고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부흥회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하는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며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보화를 찾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너무 어둡고 무서운 곳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음은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리고 내가 나아갈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화를 찾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1부 김한솔

충현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이 늘 은혜롭지만, 이번 청년 연합집회는 특별히 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론, 너무 흠어져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곤 했던 충현교회 청년부가 한 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니, 더욱 뜨겁게 하나로 뭉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위해 준비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더욱 넓고 깊게 다가왔고 참으로 충현교회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과 경험들이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양분들로 작용될 수 있음이 참 좋았습니다. 이번 연합집회에 대한 개인적인 총평으로는, 차세대 연합집회가 일회성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인 집회로 자리 잡는다면 충현교회 미래세대의 신앙적 성장에 정말 좋은 발판이 되고 더불어 각 공동체에 부흥의 불씨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연합집회를 허락하시고 진행해주신 담임 목사님 외 여러분들과, 모든 순서를 이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2부 임우찬





교회설립 70주년 청년 부흥의 날, 기대 이상으로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린 시간이었다. 최근 브릿지 집회 설교와 순 GBS 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성령님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만 충만이 임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니, 부끄럽지만 이전에는 해본 적 없던,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을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날에 나를 비롯하여 참석한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다. 부흥의 날 웅기장이 프렌즈 워십의 뜨거운 찬양인도로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악기구성의 반주로 새로운 느낌과 함께, 더욱 뜨겁게 찬양 가사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했다.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찬양 부르면서, 부흥회를 위해 기도했던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응답해주시는 것만 같은 기쁨과 감사가 마음속에 가득 넘쳤다. 이어진 한규삼 담임목사님의 말씀도 나에게 너무나 귀한 도전이 되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삶,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서의 삶, 꼭 멀리 땅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의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다. 올해 70주년 행사로써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매년 이런 청년들만의 부흥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 차세대들의 영적 성장과 부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부흥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감사드린다. 이번 부흥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끄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브릿지 김희연

충헌교회가 세워지고 7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언약 안에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이라 확신한다. 70년 전의 충헌의 미래였던 청년이 있었기에 70년이 지난 2023년에도 충헌의 청년들이 충헌의 미래로 서 있는 것이다. 청년 부흥의 날 행사는 한마디로 감동 그 자체였다. 이미 청년 1부와 2부, 그리고 브릿지 공동체는 이 부흥의 날 행사를 위해 4월, 5월, 6월 첫 주 주일에 연합 집회를 가졌다. 4월 2일, 제2교육관 4층, 집회실을 가득 메운 청년들의 열기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삶에 녹여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청년들은 충헌교회 이 곳 저 곳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년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 감동은 배가 되어갈 수 있으며 연합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부흥의 날 행사를 함께 하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이 뜨거운 청년들을 충헌교회 미래세대로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분주한 면회회 임원들.... 이들도 우리 충헌의 청년들인데... 아차 싶었다. 어른 세대들이 해줄 일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 그 어느 누구도 주의 잔치에서 열외 되어선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다음 청년 부흥의 날을 기대한다. 연합은 청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도 충헌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 진정한 부흥이 되리라 생각한다.

윤인준 집사(청년2부 부감)





몽골 1팀 선교 후기

- 6월 26일(월) ~ 7월 3일(월) -

계획도 없던 저에게 주님께서 몽골선교지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장거리 몽골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된 팀원들은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 흐트러짐 없이 선교사역을 기쁨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자르갈 선교사님께서는 바숨베르와 근처에 3개 교회를 세우셨고 울퉁불퉁한 길을 다니시며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선한목자 교회와 충현 기묘자 교회의 성도들의 집을 심방하며, 교제 나누며, 기도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와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시온교회에서는 탐방팀과 함께 하는 어린이사역에 목사님의 성경말씀 이야기로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군친이시 목사님의 첫 지방 사역지는 중하라 였습니다. 목축업에 임하는 주민이 많아 집회 때는 여기저기서 자동차와 말을 타고 모여 100여명의 어린이와 어른이 모인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함께 찬양 할 수 있었습니다. 중하라는 미래의 사역지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몽골 충현교회는 설립일이 2017년 8월 6일입니다. 군친이시 목사님께서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교회 분위기, 짜임새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몽골 충현교회가 우리교회와 똑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감개무량했습니다. 찬양을 이끌어 나가는 사모님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느낀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선교사역에 열심을 내는 충현의 식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8교구 박미혜 권사

몽골에 도착한 첫날 코로나로 선교가 멈췄던 기간 동안 몽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지는 등 어려웠던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멈추지 않고 변화하고 있었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떠나 몇 시간만 가도 넓은 광야와 소와 말들뿐이고, 인적이 드물어 황량함과 적막감이 들만 가득했다. 선교사역 중에 자르갈 선교사와 군친이시 목사님 사역지에서 진행된 어린이 사역은 내게 가장 인상 깊었다. 특히, 전기는 물론 화장실과 잠자리도 너무나 열악한 오지 중하라에서의 어린이 사역은 감동적이었다. 순수한 몽골 분들과 어린이 들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순식간에 100명 이상 모여들었고, 진지하게 설교와 찬양을 듣고,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내게는 감동적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몽골 인구의 70% 이상이 30대 미만인 젊은이들이라고 한다. 몽골 땅에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중요한 선교 사역지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또한 그분들은 환경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하나님을 만나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이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자르갈 선교사와 군친이시 목사님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선교사역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몽골선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신 사역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교구 송명애 집사

생전 처음 가보는 몽골에 선교사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처음에는 두려움과 떨림과 기대가 컸습니다. 때마침 다니던 직장을 명예 퇴직한 후라 시간도 많아서 선교 언어도, 선교 찬양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바숨베르에서의 사역에서는 탐방 팀으로 오신 강성은 목사님께서 몽골의 어린이들 앞에서 어린이들의 귀에 꼭 들어가도록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몽골 충현교회에서는 제가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부족한 제가 강단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컸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나무위의 삭개오>입니다. 저는 통역하는 분의 도움으로 천천히 말씀을 읽어나갔습니다. 점차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죄가 많은 삭개오도 사랑으로 감싸주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강단에 있는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타인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가는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8교구 김순임 집사





목요 교회 앞마당 차나눔



7

목요 차나눔

2023년 7월 16일 · 제1784호

주간
충현



앞마당 커피봉사를 통해 주변의 이웃들과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뜻을 밝게 되는데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커피 한잔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다.

1교구 김영희 권사

비가 오는 날, 이런 날은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굳이 진행을 해야 하는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떠오르게 하셨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낮 뜨거운 우물가로 나온 그 한명의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빗속을 뚫고 찾아올 갈급한 한 영혼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지속되는 목요 차나눔의 자리가 이 시대의 지친 영혼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던 그 우물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2교구 김혜란 권사-전도위 간사

차(커피)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에 나누어 준 주간충현을 받아본 그들의 눈빛과 관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이 느껴졌다. 그들 중에 있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 같은 심정을 가진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것 같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는다. 우리는 차나눔 한 잔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사랑의 마음으로 전할 뿐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짐에 감사드린다.

8교구 이해숙 권사

2023년 전도위원회에서는 교회주변 이웃주민 및 직장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교회 앞마당 차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3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8주간 평균 170여명(총 3,084명)이 참석한 목요 차나눔을 통하여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교구별로 함께 섬겨주셨으며, 찬양위원회와 함께 앞마당 버스킹 사역을 3회 진행하였습니다. 7~8월 하계 휴식기간을 보낸 뒤, 9월부터 다시 본당 앞 무료 차나눔 행사는 지속됩니다.

봉사가 힘든 부분도 있고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작동이 멈추기도 하는 기계를 다루기도 번거롭기도 했으나 막상 차 한잔을 받아 마시며 고마워하는 많은 이웃들을 보면, '그래 이것이 이웃 사랑의 출발이야. 그리고 내가 바로 그 현장에 있어' 하는 뿌듯함이 있었다.

2교구 정찬혜 집사

팬데믹 시기 교구 봉사로 처음 접했던 앞마당 차나눔 사역은 참 새롭고 신선했다. 전통적이고 보수교회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우리 교회에서 교회 문을 개방하고 친근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첫걸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를 건네며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만 건네지만 분명히 그 차 한잔과 함께 건넨 그 말이 떨어지지 않고 결실을 맺을거라 확신하고 기도했다. 앞으로도 앞마당 사역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 이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10교구 정유진 집사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전시관 및 디지털 역사관(아카이브)을 위한

충현교회 역사 자료 수집

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자료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역사 전시관 개관)
성도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잘 활용하겠습니다.
(준비팀에서 자료를 검토하여 전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전시할 시 기증자 이름으로 전시합니다.)

수집자료: 교회 행사 사진, 인물 사진, 교회 실물 자료(주보, 책자, 소품 및 동영상(비디오테이프) 등)
수집기간: 7월 16일(주)~ 7월 30일(주) 까지
문의: 기획위원회 이정진 집사(010-3203-8308)/임부루 집사(010-3237-0766)

6월 입적자 명단 ※ 충현의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본과정 수료자(20명)

강상열 고에스더 기혜경 김동혁 김선홍 김소정 김연옥 김인문 김종익 박희정 변현우
오진원 유옥자 이승주 이신의 정선아 채민이 최신희 한지원 황준필

교육위원회(11명)

김연규 김예주 김준희 김형찬 박서현 이진렬 장인혁 조재이 주사랑 표이한 표이현

차세대위원회(5명)

곽창대 곽창희 안기섭 위석민 이서아

사랑부(3명)

백소연 이명구 이형규

충현교회
상근직원모집

충현교회 전기기사 0명 모집

대상 및 자격: 세례교인으로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제출처 : 사무국 김어현 집사(010-4181-1714), 552-8200(401)

2023년도 하반기 회계교육

일 시: 2023년 7월 23일(주) 시 간: 16:30~18:00 장 소: 제1교육관 404호
지참서류: 2023년도 예산편성표 대 상: 각위원회 및 산하부서의 회계, 부서장 또는 부감(위원회 간사)

2023년 각위원회 및 산하부서 하반기 정기감사 (2023년 1월~6월)

제출시기: 7월 16일(주)~8월 27일(주) 제출장소: 감사위원회 본당 701호(동쪽 엘리베이터 이용)
제출서류: 1) 2023년도 조직도 2) 2023년도 사업계획서 3) 2023년도 예산편성표
4) 2023년도 시산표(1월~6월) 5) 2023년도 현금출납부(1월~6월)
6) 2023년도 영수증(1월~6월) 7) 2023년도 예산청원서(1월~6월)

7월 권사회 전체 월례회

일 시: 7월 19일 수요일예배후 (12:00) 장 소: 본당 및 실시간 영상

예배 담당(7/19~7/23)

날 짜	예 배	설교	사회	기 도
7/19	수요 I	매임에서 해방으로 (눅 13:10-17) 권혁근 목사	김유석	김은숙
7/21	금요일집회	인류는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롬 5:12-21) 한규삼 담임목사	윤준식	
7/23	주일 I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시 73:17-25) 한규삼 담임목사	박요셉	최규옥
	주일 II		정석훈	최승민
	주일III		이기영	이석재
	주일찬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딤후 3:16-4:5) 이기영 목사	임진실	안성용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 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일 집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일집회 강사: 임진실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4교구

구분	시간	장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11:00~12:00 (아동, 청소년)	사무엘홀(제2교 204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에스라) 12:40~13:40(이블로)	디도홀(제1교 401호)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11교구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일집회시)	제2교육관 4층
예꿈 양육부	(주)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197	이윤지	기본과정	노윤영
2	1203	홍정희	기본과정	
3	1210	최창만	기본과정	
4	1214	김시내	기본과정	권정자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207	김영진	기본과정	조순희
2	1208	김남례	기본과정	조순희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995	위석민	청년2부	이혜린

출산

1. 황옥 성도, 박선민 성도(신혼가정부) / 출산, 아들(황영광), 7월 3일

별세

1. 김윤식 은퇴서리집사(왕유남 은퇴 권사의 남편, 8교구) / 9일 별세, 11일 장례
2. 이형석 타교집사(박길수 성도의 모친, 6교구) / 10일 별세, 12일 장례

충현 주차관리 시스템 도입 차량등록 및 차단기 설치 계획

1. 7월 9일(주)~16(주) 전교인 차량등록(교구 및 부서, 엑셀파일로 사무국 제출)
2. 번호인식 차단기 설치진행(7월 24~25일, 8월 3~4일)
3. 8월 첫째주 시범운영
4. 8월 둘째주 충현 주차관리 시스템 본격 운영

만들린 연주대 대원 모집

1. 악기: 만들린, 만들라, 만도첼로, 클래식 기타
2. 수요일예배 찬양 담당(수요 예배 전후 연습)
3. 문의 황애경 권사(010-7102-1569)

교구별 주력새벽기도(7/17~7/23)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7(월)	이성환/임부루	렘 5:20-31	전교인
18(화)	한규삼/배종락	렘 6:1-15	전교인
19(수)	강성은/임지혁	렘 6:16-30	전교인
20(목)	정석훈/이승득	렘 7:1-15	8교구
21(금)	문진호/정명근	렘 7:16-29	3교구
22(토)	이다현/이다현	렘 7:30-8:3	전교인
23(주)	박성덕/박성덕	렘 8:4-17	전교인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충현동산이사장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이상섭 행정위원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종보기도부장
조증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할렐루야찬양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이창희 충현복지재단이사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무위원장	최현구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중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이매천양대장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건축위원장	김철남 예루살렘찬양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별명찬양대장	홍순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준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이정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홍연 헌금부장
최규옥 예배위원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인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의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1교구 선교위원	강성은 11교구	김주환 12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랑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유치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청년1부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박예령 영아부
------------	------------	------------

■ 협력선교사

강기엽 최동현	윤해균	윤병범	강영미	한용관
------------	-----	-----	-----	-----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람자야 라우단다쉬
베 웅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경행 김산숙 김영암 김형진
박태연 안석렬 유재홍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정화